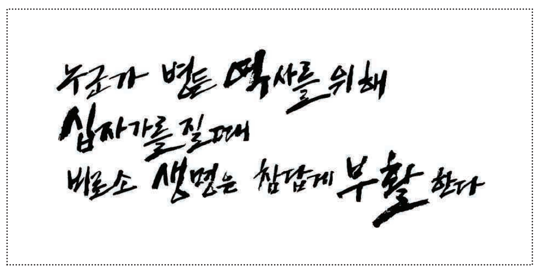
■ 故 류동운 추모비 신광성결교회에 선다

오월의 십자가 짊어지고 부활하는 '아름다운 청년'



꽃다운 한 젊은이의 치열한 역사의식이 광주 민중항쟁 27년 만에 십자가로 부활한다.

80년 5월27일 새벽 2시 전남도청. 시민군에게 실탄이 지급됐다. 계엄군의 진압을 예감한 시민군 150여 명은 여자와 중고생들을 돌려보낸 후 죽음을 무릅쓴 항쟁을 맹세했다. 그 자리엔 경북 포항이 고향으로 광주 동신중과 진흥고를 졸업한 스무 살 청년 류동운<사진>도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해 5월18일, 한신대 신학과 2학년이던 류동운은 광주 신광교회(현 신광성결교회) 시무(視務) 목사인

포항출신 광주서 중·고 졸업
5·18 시민군 도청에서 산화
교인들 27년만에 기념사업

아버지(류연창·대구 봉산성결교회 원로목사)로부터 광주 소식을 접하고 달려왔다. 도청 앞 시위현장에서 계엄사에 연행된 그는 이틀 뒤 석방된다. 뒤통수는 깨져 피가 흘러내렸고 온몸에는 멍자국이 있었다. 집에서 잠시 몸을 추스린 그는 25일 선배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한 후 곧장 도청으로 들어갔다. 못 가게 붙잡는 아버지에게 그는 말했다.

"다른 집 자녀는 다 희생당하고 있는데, 왜 저만 보호하려고 하십니까? 역사가 병들었을 때, 누군가 역사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만 큰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버지께 들었던 설교를 다시 말하고 있었다. 류 목사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아들을 붙잡지 못했다. 집을 나서기 전 류동운은 '한 줌의 재가 된다면 어느 이름 모른 강가에 조용히 뿌려다오'라는 글을 일기장에 남겼다.

그는 '시민학생수습대책위원회'에서 일하며 시신을 찾는 일을 맡았다. 27일 새벽, 류 목사는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기도했지만 끝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시각 도청으로 진입하는 계엄군의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류동운은 3일이 지나서야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복부는 총상을 입은 채 화상으로 검게 그을려 있었고, 군화로 짓밟힌 흔적이 얼굴에 남아있었다.

역사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최후까지 도청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고(故) 류동운. 그를 기억하는 기독교인들이 27년 만에 부활의 십자가를 세운다. 오는 26일 광주시 남구 구동 신광성결교회에서 열리는 '고 류동운 열사 추모비' 제막식에는 아버지이자 민주인권운동계의 원로인 류연창 목사도 참석한다.

추모비는 광주의 5월을 상징하는 '5'자(字) 모양의 높이 150㎝·폭 60㎝ 크기로 강태회씨가 조각했다. 탑 위쪽에는 열사의 영정과 도청 광장을 형상화한 동판이 올려진다. 교인들과 선후배들은 또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 추모 블로그(http://cafe.naver.com/fbehddns)도 개설했다.

그가 죽음을 예감하고 남긴 일기의 일부가 시인 박남준의 글씨로 추모비에 새겨졌다.

'누군가 병든 역사를 위해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생명은 참답게 부활한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5·18 27주년 추모미사 5·18 민중항쟁 27주년 추모미사가 14일 오후 7시30분 '5·18 기념성당'인 광주시 동구 남동 성당에서 광주대교구 최창무 대주교의 집전으로 거행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수 식중독 의심 환자 1주일만에 100명 넘어

여수시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환자 수가 발생 6일 만에 100명을 넘어섰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여수시 선원동 K김밥 전문점에서 음식을 사먹은 박모(여·33)씨 등 50여 명이 심한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여 입원한 것을 비롯, 이날까지 107명이 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

이중 증세가 심한 90명은 여천 전남병원 등 4곳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시 보건당국은 해당 업소의 영업을 중지시키고 식당 업주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검사 대상물을 채취,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16일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관내 김밥 전문점, 단체급식소와 음식자재 납품업체 등에 대한 긴급 위생 점검에 나섰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음식자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음주운전 사고 잇따라
단속 의경 친 30대 도주

지난 13일 밤 10시께 광주시 동구 소태동 M치과 앞 도로를 건너던 홍모(48·광주시 동구 소태동)씨가 광주 11나60XX호(운전자 정모씨·39) 갤로퍼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 정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61% 상태였다.

앞서 밤 9시40분께 광산구 송정동 L병원 앞에서 김모(36)씨가 자신의 광주 60도28XX호 렉스턴 차량으로 음주단속 중이던 임모(22) 상경과 강모(22) 이경을 치고 달아났다. 임 상경 등은 옆구리 등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밤 10시50분께 광산구 도산동 김씨의 아파트로 찾아 갔으나 김씨가 베란다를 넘어 달아나는 바람에 놓쳤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더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본사:(062)514-3002 ▶공장:(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점:(062)525-9002 ▶전주점:(063)271-5051

"불륜 알리겠다" 내연녀 폭행 돈 뜯어

쌍나팔

○…성인오락실에서 만난 내연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14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강도 등 전과 23범인 강모(32·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는 지난 3월부터 북구 두암동 일대 모텔 등에서 내연녀 L(여·43)씨를 감금·폭행하고 현금 1천100만원과 신용카드 1매를 빼앗았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성인 오락실에서 알게 된 L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돈을 요구했으며 "불륜 사실을 남편과 직장에 알려 가정을 파탄시키겠다"고 협박.

○…경찰은 또 강씨가 L씨를 만날 때 차를 운전하고 '망'을 봐준 선배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5·18묘지 어린이 100만 넘게 참배
눈높이 맞는 프로그램 절실

국립 5·18 민주묘지에 유아·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1997년 5월 개소 이후 민주묘지를 다녀간 참배객 수는 650만 명이 넘었다. 이 중 초등학생·유치원생들의 수는 2004년 85만3천여 명에서 2006년 102만6천600여 명으로 20% 증가했다. 올 4월 말 현재 104만8천300여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전국에서 다녀갔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역사체험 공간인 '역사의 문' 지하에 마련된 사진자료실에는 80년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122점과 40분 분량의 영상기록물 '5·18 다큐멘터리'만 상영되고 있다.

14일 문을 연 추모관 2층에는 '5·18 기념재단'이 주최한 'Web 애니메이션 공모전' 수상작 28편을 감상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모두 중학생 이상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광주 S어린이집 김민정(여·27) 교사는 "광주의 역사인 5·18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데리고 왔지만,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게임중독·가족소홀은 이혼 사유"
서울가정법원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원정숙 판사는 김모(여)씨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해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다"며 남편 백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의 혼인생활 파탄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한 채 김씨와 두 아이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남편 백씨의 잘못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없이 집을 나간 김씨의 잘못이 함께 작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들의 친권자로 김씨를 지정하고, 남편은 첫째 아이가 성년이 되는 2015년 9월까지 월 50만원을, 그 이후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월 25만원을 양육비로 주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남편이 게임에 빠져 2000년 회사를 그만두고 게임에만 몰두해 불화를 겪었으며 2004년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동생집에 머물면서 별거에 들어간 뒤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